

**본 문제해설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동국대학교에 있습니다.  
본교의 서면 허락없이 무단으로 출판, 게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국대학교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 해설(인문계 I)

### [문제 1]

#### 1. 출제의도

본 문제는 인간의 감정 표출, 특히 눈물과 통곡이 어떤 감정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되, 그 구분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제시문 [가]에서 볼 수 있듯이 눈물이나 통곡이 인간의 칠정(七情) 중 슬픔[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표출되는 눈물이나 통곡은 어떤 감정이든 그 극한에서 표출되는 심리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외형적으로 유사하게 표출되는 감정이 실은 다양한 원인으로 야기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본 문제에 제시된 지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학습자료 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제시문의 내용을 이미 학습했거나, 학습하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정하여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일정부분 기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본 문항의 출제유형은 학생들의 개인의 심리 표출이나 타인의 감정 상태를 반성적이고 이타적으로 음미하여 다양한 인간과 복잡한 사회를 ‘상호 이해와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모색할 수 있도록 이해력, 분석력, 적용력을 평가하는 유형으로 출제하였다.

#### 2. 평가기준 및 평가주안점

##### (제시문 해설)

[가]는 연암 박지원의 글로, 사람이 울 수밖에 없는 감정이나 상황을 ‘희로애락애오욕’이라는 칠정(七情)에 연결시켜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우는 행위는 슬픔[哀]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기쁨, 노여움,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의 감정에서도 그정도가 극에 달하면 울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감정 표출의 근원적인 물음이자,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보여준다.

[나]는 식민지시대에 단발령으로 인해 강제로 머리를 깎이게 된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다. 더러 머

리를 꺾을 수 없다고 하여 벼슬을 버린 이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속절없이 머리를 꺾어 그 분노로 통곡하는 모습이다. 물론 이 분노와 통곡의 언저리에는 ‘국망(國亡)’이라는 현실과 ‘불효(不孝)’라는 명분이 자리하고 있지만, 일본에 대한 적의가 강렬하게 표출되고 있다.

[다]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이별해야 하는 어머니와 ‘나’가 설렁탕 한 그릇을 먹으면서 벌어진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국물이나마 더 주기 위해 식당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어머니와 그런 국물을 받으면서 울컥 눈물을 흘리는 아들 ‘나’가 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태연하려 했던 ‘나’는 어머니의 무한한 자식 사랑에 그만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컥하면서 눈물까지 흘리게 된 것이다.

[라]는 제시문 [가]에 이어진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통곡을 갓난아이가 막 세상에 나왔을 때의 느낌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부짖는 것을 두고 자신이 인간세상에서 겪을 일들을 예감하여 미리 슬퍼하는 행위로 보려 하지만, 연암 박지원은 갓난아이가 갑갑한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탁 트인 세상으로 뛰쳐나와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어 참된 소리로 울부짖는 것이라고 보았다.

[마]는 고전소설의 한 장면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남자인 진사(進士)가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을 뿌리는 모습이다. 여인과 진사는 다시 만날 수 없는 현실 앞에 더 이상 살아갈 의지마저 잃게 되며, ‘이젠 모든 것이 끝났고 죽어서나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절망적인 상황이 연출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계급사회였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현대의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의 모습하고는 좀 다를 수 있으나, 이별에 직면해서 표출하는 감정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

### (평가 주안점)

본 문항은 총 25점이 배정되어 있으며, 제시문 [나]~[마]의 눈물과 통곡의 성격을 제시문 [가]에 의거하여 구분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주요한 점은 제시문 [나]~[마]의 눈물과 통곡이 각각 다른 이유에서 연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제대로 짚었는가 하는 점이 평가의 기준이다. 즉 [가]에서 제시된 기쁨[喜], 노여움[怒], 즐거움[樂], 사랑[愛], 미움[惡], 욕심[欲] 등의 감정으로 구별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1차 변별점이다.

그런데 다음 두 가지 점은 고려의 대상이다.

첫째, 제시문 [마]를 제외하고는 슬픔[哀]과 관련된 눈물이나 통곡이다. 그러나 제시문 [가]에 의거할 때 슬픔은 각 항목에 보편적으로 전제한다고 보고 답안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둘째, 그렇다면 [나]는 노여움[怒], [다]는 사랑[愛], [라]는 기쁨[喜], [마]는 사랑[愛]에서 발로된 눈물과 통곡이다. 그런데 제시문 [나]~[마]는 또 다른 감정이 개입되어 있기도 하다. [나]는 미움[惡]의 감정도 들어 있으며, [라]는 즐거움[樂]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다]와 [마]는 같은 사랑[愛]이지만 [다]는 부모와 자식간의 자애의 사랑이며, [마]는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으로 구별된다. 이를 판단하는 것이 이 문제의 초점이 될 것이다.

## (평가기준)

- 이상적인 답안은 제시문 마다 칠정 중 가장 적실한 감정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나]는 노여움이며, [다]는 사랑이며, [라]는 기쁨이며, [마]는 사랑이며, [다]와 [라]의 사랑을 부모간과 이성간으로 구별하여 서술하면 된다.
- 그런데 앞에 요구한 감정 대신에 부차적인 감정, 즉 [나]는 미움, [라]는 즐거움 등을 제시한 경우도 일정한 점수를 줄 수 있다. 이 외의 전혀 다른 감정을 제시하거나, 슬픔[哀]으로만 답하거나, 단답형으로 그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나]는 노여움이다’ 식으로 끝난 경우는 모두 감정 요인이다.
- 이에 따라 [가]~[마]의 네 가지 감정을 다 기술하면 최상급(25점), 세 가지만 맞추면 상급(20점), 두 가지가 맞추면 중급(15점), 한 가지 이하를 맞추면 하급(10점 이하)으로 평가한다. 또 주 감정이 아닌 부차적인 감정을 기술하면 각 항목당 2점을 감점하기로 한다.

## 3. 모범(예시)답안

“제시문 [나]~[마]는 각각 눈물과 통곡이 서로 다른 감정에서 드러난 예이다. 이를 제시문 [가]에서 언급한 칠정(七情) 가운데 의거하여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나]는 강제로 머리를 깎여 그 울분을 차지 못해 통곡하는 노여움(분노)의 감정이다. 제시문 [다]는 어머니의 자식을 아끼는 마음에 감동하여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다. 제시문 [라]는 갓난아이가 답답한 태속에서 넓은 세상으로 뛰쳐나와 울부짖는 기쁨의 통곡이다. 제시문 [마]는 사랑하는 여인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흐느끼는 사랑의 눈물이다.”

## [문제 2]

### 1. 출제의도

본 문제는 소수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및 불평등 현상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전개되어오는 일면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평등 사상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 아직도 성적 차별화 현상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들을 이해해보자는 의도로 구성되었다.

본 문제에 제시된 지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학습자료 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제시문의 내용을 이미 학습했거나, 학습하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정하여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일정부분 기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본 문항의 출제유형은 학생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우선 역사적 맥락

에서 이를 이해하고 현실사회에서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원인을 찾아봄으로써 향후 대안구성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기에 이해력, 분석력 및 적용력과 응용력까지를 평가하는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 2. 평가기준 및 평가주안점

### (제시문 분석)

[가]는 상속과 여성의 지위에 관한 고려시대 손변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재산 상속에서 아들과 딸의 차별이 없었다는 점은 고려사회는 가정 내에서 남녀의 차별이 거의 없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학생에 따라, 고려시대에는 여성의 위상이 더 높았다고 인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

[나]는 성리학적 명분론이 조선시대 사회질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은 양반 관료가 지배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교적인 양반 문화가 형성되어 상명하복식 종적질서의 정착을 이루고자 했다.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논리는 안정된 신분제 정착을 가져왔지만 한편으로 남성 및 장남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형성되어 여성을 종속적인 객체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로 이끌게 되었다.

[다]는 현대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평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순종적이며 인내를 강요당하는, 고전적인 여성상을 형상화시키는 간접적인 학습효과를 만드는 대중매체의 여성 차별적 현상을 묘사하고 있다. 즉 제시문 [나]에서 나타난 조선시대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구조화되면 새로운 구성원들은 그것을 다양한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학습하게 되어 편견과 차별이 세대간에 전승이 되는 예라 볼 수 있다. 사회화가 새로운 구성원이 그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이라 볼 때, 이 글은 편견과 차별이 전승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일상적 삶 속에서 대중들이 무비판적으로 당연시하는 수용인식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즉 제시문 [나]에서와 같은 성리학적 명분론이나 제시문 [다]의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고전적 수동형 여성상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에 현실적인 사회·문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입장에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즉 여성 스스로 사회적 차별성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자생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마]는 교과서에 있는 오기현의 ‘혈액형의 진실’이라는 글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간의 첨삭을 더했다. 글의 내용은 혈액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다루고 있지만, 여성차별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ABO식 범주화의 예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서로 다르지만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차이’의 사회보다는 범주화를 통한 하나는 우월하고 다른 하나는 열등하다는 ‘차별’의 사회화가 진행될 수 있는 개연성을 말해준다. 즉 범주화가 지나치면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해당 집단의 모든 개개인이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과도하게 일반화를 하게 되고 다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여성은 남성

보다 감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믿는 것이 그 예이다.

[바]는 자발적 결사체인 한국여성민우회의 여성인권운동 중 하나이다. 제시된 사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불완전한 제도의 결과로써 나타난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자아 성취를 가로막는 제도적, 법적 제한들이 남성에게 대한 여성의 종속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조장하는 제도들을 철폐하고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재정비한다면 성 불평등 현상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례이다.

### (평가기준 및 평가주안점)

본 문항은 총 30점이 배정되어 있으며, 질문은 2가지로 구성되어 각각 15점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질문 A: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의 위상에 대한 변화를 기술하고,

제시문 가: 고려사회는 가정 내에서 남녀의 차별이 거의 없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다. (고려 시대에는 여성의 위상이 더 높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제시문 나: 조선시대로 넘어오며 유교적인 양반 문화에 따른 남성 및 장남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로 이끌게 되었다.

제시문 다: 현대에 있어서 평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여성을 고전적인 수동적 여성상으로 형상화시키는 대중매체 등의 여성 차별적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평가기준: 각각의 제시문들을 적합하게 이해하고 기술하는 경우 각 5점씩의 배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제시문을 적절히 기술하는 경우 15점, 두 제시문을 기술하는 경우 10점, 한 제시문을 기술하는 경우 5점)

\* 질문의 난이도가 높지 않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난히 배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작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질문 B: 제시문 [다], [라], [마]를 이용하여 평등을 강조하는 현대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여성, 남성,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제시하십시오.

제시문 라: 현대에 있어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여성 스스로 사회적 차별성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자생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태도가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제시문 마: 현대에 있어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여성과 남성을 범주화시킴으로 나타난 남성이 우월하다는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남성사회 속에 아직 존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바: 현대에 있어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자아 성취를 가로막는 불완전한 제도적, 법적 제한들이 남아 있

기 때문이다

**평가기준:** 제시문들 적합하게 이해하고 차별의 원인을 제시문에서 찾아 기술하는 경우 각각 5점씩의 배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제시문에 기술된 원인을 적절히 기술하는 경우 15점, 두 제시문의 경우 10점, 한 제시문의 경우 5점)

\* 질문의 난이도가 높다고 보지 않지만, 제시문 마의 경우 ABO식 혈액형 지문의 내용을 남성과 여성의 범주화 현상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다소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예시답안>

“고려시대는 가정 내에서 남녀의 차별이 거의 없는 평등한 사회였지만, 조선시대로 넘어오며 유교 문화에 따른 남성 및 장남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는 사회를 만들었다. 평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고전적인 여성상을 내재한 ‘수동적인 여성화’를 표현하는 대중매체 등으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적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듯 여성에 대한 차별현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성 스스로도 사회적 차별행위 개선을 위해 자생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태도가 아직 미흡할 수 있으며, 여성과 남성을 범주화시킴으로 형성된 남성 우월적 고정관념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 남성집단 속에 아직 존재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자아 성취를 가로막는 불완전한 제도적·법적 제한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 총 글자 수: 420자 (공백포함)

### [문제 3]

#### 1. 출제의도

본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도출해보려는 의도를 갖고 출제하였다. 부와 권력이 세습되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개인적·배금적 풍조가 팽배한 사회에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 물질적 풍요만으로 삶을 충족시켜 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는 의도로 구성되었다.

본 문제에 제시된 지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학습자료 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제시문의 내용을 이미 학습했거나, 학습하지 않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정하여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일정부분 기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본 문항의 출제유형은 학생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우선 역사적 맥락에서 이를 이해하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생각하여 향후 참된 행복을 구현하는 데 있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자 했기에 이해력, 분석력을 바탕으로

로 대안제시 능력까지 평가하고자 했다.

## 2. 평가기준 및 평가주안점

### (제시문 분석)

[가]는 중국 송 황제 진종의 권학문으로 과거에 합격하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시의 일부이다. 중국이나 조선에서도 오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투자하여 과거 시험을 준비하여 합격하게 되면 부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는 행복 추구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밖으로는 현실이라는 상황 하에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안으로는 배움을 실천으로 표출하여 내면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다]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관한 글로 삶의 한 방편을 이야기하고 있다. 글은 행복은 물질적 풍요로만 얻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하여, 삶과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인간의 숙명 속에서 무소유의 삶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 존재하는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는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평가기준 및 평가주안점)

본 문항은 총 45점이 배정되어 있으며, 질문은 2가지로 구성되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요약하는 문제는 30점을, 현대 사회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삶의 유형을 제시하는 문제는 15점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요약문제(30점):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행복 추구 방안의 차이를 서술한다.

제시문 가: 중국을 위시해 조선에서도 인생 최고의 목표는 과거 합격이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저절로 부와 호화 저택이 굴러 들어온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 행복 추구 방안이 담겨져 있다. 행복 주장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으며, 행복은 자신만이 향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타인들과 공유해야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배움을 실천하여 내면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세계 질서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 다: 우리들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히 던질 줄 알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소유했던 것이 도리어 우리 자신을 구속하고 있으며, 물건의 소유욕은 사람도 소유하려는 욕심으로 드러난다. 무소유만이 개인의 이해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평가기준: 각각의 제시문들을 적합하게 이해하고 요약하거나 논술하는 경우 각각 10점씩, 함께 30점의 배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질문의 난이도는 보통이나 수험생들이 제시문 [나]를 쉽게 이해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지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논의문제(15점): 현대 사회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삶의 유형을 제시문 중에서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제시하였기에 그 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질 수 있다.

### 1. 제시문 [가]를 선택한 경우

제시문은 송 황제 진중이 공부를 통해 과거에 합격하면 부자도 되고 호화스런 저택도 소유할 수 있다고 학문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삶의 방향을 계획하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고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점을 밝히면 된다.

예로 사회적 성공을 통한 높은 지위의 획득과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사법고시에 응시한다고 가정 하자. 조선시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과거 준비를 30~40년간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는 것이다. 사회적 명성과 고소득이 보장되는 판사·검사·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학부시절부터 시험 준비를 시작해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를 세월을 감내해야 한다. 76세에 과거에 합격한 김효흥처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법고시에도 연령 제한은 없다. 이른 나이에 고시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 정진해도 불합격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생겨 변호사가 되는 길이 쉬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수학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도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고 거기에서 얻는 과실이 크고, 그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서술하면 된다.

이러한 논리는 역으로 비용과 노력에 비례하여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발휘되는가 하는 점도 시야에 두고 논할 필요가 있다. 예로 젊은 나이에 과거 시험, 지금으로는 각종 고시에 응시하다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고뇌하는 점을 다루어도 좋을 것 같다.

### 2. 제시문 [나]를 선택한 경우

참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실과의 연계성을 중시하는 삶을 살겠다는 방향으로 서술하면 된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에 소개된 글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자문 자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험생들은 답안을 세 가지 방면으로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된다. 첫째는 자신의 행복은 타인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둘째는 외적인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점을 논술해야 한다. 타인과의 관계는 혈연집단에서 세계 질서 속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교육은 내면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요소임을 논리적으로 강조하여 제시하면 된다.

### 3. 제시문 [다]를 선택한 경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개인적·배금적 사상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물질만능 사회 속에서 법정 스님은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라고 한다. 그렇다고 소유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스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의 물품만 지니고 긴요하지 않은 물품은 손에서 놓으라고 이야기한다. 다만 그것은 물품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무소유의 외연을 확장하면 그것은 물질보다 중요한 정신일 수도 있다.

수험자는 이러한 사례를 들어 논리를 전개하면 될 것이다. 가령 자신이 느끼거나 체험한 소유의 불편한 사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도 있다. 소유하려던 욕심이 지나쳐 탐욕에 빠져 사랑하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작은 사례를 통해 최소한의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강조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사물에 집착하여 버리지 못하다 크게 잃게 된다는 경험이나 독서에서 얻은 사례를 명료하게 제시한다.

다음으로 물질적인 소유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점도 사례를 들어가며 논리를 풀어 놓는다. 이러한 경우 제시문 [가]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을 예시한 위에서 과연 늙은이가 되어서야 과거에 합격하는 길이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과거 합격만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지름길인지, 일순이라도 부를 향유하는 것이 최대의 삶의 목표인지를 되새겨 보는 것이다. 과거 합격이라는 집착이 거꾸로 행복한 삶을 잃게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가령 76세의 나이에 과거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남은 여생 동안에 얼마만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한다.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물음을 시작으로 무소유의 행복을 서술해 보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한 때 한 때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제시하면 된다.

**평가기준:** 지문 속 담겨 있는 바람직한 행복의 상을 추출하고 그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작성하는 경우 총 15점까지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논리성이 부족한 경우는 감점 요인이 클 것이며, 적절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 추가적인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 \* 질문의 난이도는 높다고 보이나, 각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람직한 삶의 유형을 이해한 후 현대 사회에 바람직한 삶의 유형을 정연하게 제시하는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